

최근 터키 경제의 변동성 증가 배경 및 전망

이철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구미팀 선임연구원 (cwlee@kiep.go.kr, Tel: 044-414-1071)

차 례

1. 최근 터키 경제 현황
2. 터키 경제의 주요 성장요인과 위험요인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터키 경제가 2017년 7.4%의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신흥시장 고성장의 대명사인 중국과 인도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함은 물론 공식적으로도 G-20 국가 중 터키가 2017년 최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끝났던 2016년 이후 통화정책 완화와 확대재정정책에 힘입어 터키 경제는 2017년 들어 내수활성화에 성공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함.
 - 최근 터키 경제의 고성장세는 주로 대내외 정세불안 완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 효과, 국내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 등에 기인함.
- ▶ 터키의 경제성장이 상당 부분 국내수요의 증대에 힘입었다는 점을 들어 IMF는 국제유가 인상과 리라화 환율변동성 확대 등으로 현재 과열된 터키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국제신용평가 기관들도 터키 경제의 최근 위험요인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이러한 터키 경제의 위험요인과 함께 서방과 대립각을 보여주고 있는 현 에르도안 정부의 정치적 리스크도 해외투자자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 ▶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 지속으로 터키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4% 전후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때 효과적인 물가상승 압력 차단과 환율안정 등 거시경제안정성 확보, 구조적인 경쟁력 향상을 통한 대외불균형 개선 성공여부가 건실한 경제성장의 관건이 될 것임.
 - 2013년 5월 이후 한·터키 FTA 발효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중장기적 대외위험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터키 경제의 고성장세와 막대한 성장잠재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 인구 8천만 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터키 경제의 최근 고성장세를 감안할 때, 향후 터키와의 경제협력 강화에서 전술한 내수확대 중심의 터키 경제성장 모델을 주목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터키의 거시경제 불안요인 및 정치적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미국의 금리인상 결정에 가장 취약한 신흥국 통화가 터키의 리라인바, 우리 기업들의 대터키 교역 및 투자를 포함한 각종 비즈니스에서 리라화 환율의 불안정성은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헤지 등과 같은 대응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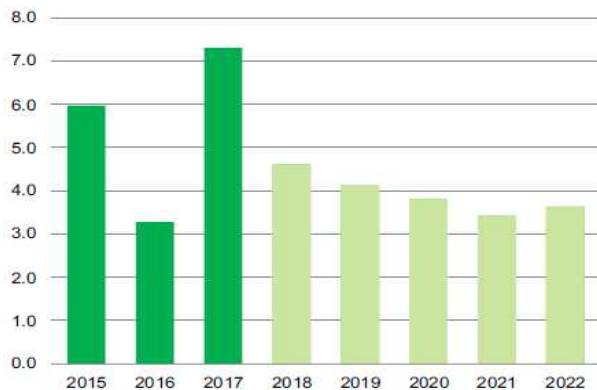
1. 최근 터키 경제 현황

■ 터키 경제가 2017년 7.4%의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신흥시장 고성장의 대명사인 중국과 인도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함은 물론 공식적으로도 G-20 국가 중 터키가 2017년 최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¹⁾

- 2018년 3월 29일자 터키 통계청(Turkstat) 발표에 따르면, 터키 경제는 2017년 전년대비 7.4%, 2017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7.3%의 성장을 각각 기록함.
- o 이러한 터키 경제의 성장세를 주도한 주요 성장동력은 2017년에 전년대비 6.1%와 5.0%의 증가를 보인 가계 소비와 정부지출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7년 중국과 인도는 전년대비 6.9%와 7.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그림 1. 터키의 실질 GDP 증가율 추이 및 전망

(단위: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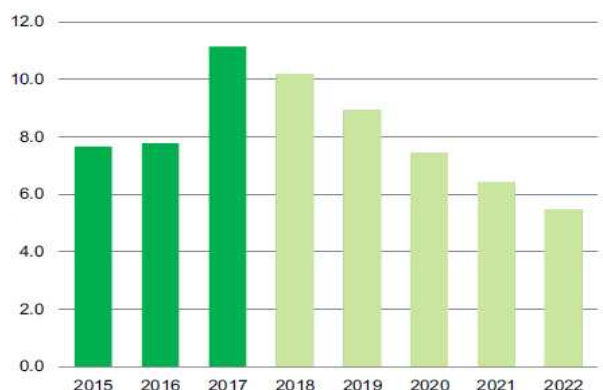


주: 2017년까지 실측치, 2018년 이후 예측치.

자료: IHS Markit(2018. 4. 18), Turkey Economic Outlook(검색일: 2018. 4. 24).

그림 2. 터키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단위: 전년대비, %)



주: 2017년까지 실측치, 2018년 이후 예측치.

자료: IHS Markit(2018. 4. 18), Turkey Economic Outlook(검색일: 2018. 4. 24).

■ 터키 경제는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끝났던 2016년 이후 통화정책 완화와 확대재정정책에 힘입어 2017년 들어 내수활성화에 성공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함(그림 1 참고).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터키 경제는 2010~15년 동안 연평균 7% 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다가 2016년 들어 경제성장세가 주춤함.
- o 군사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2016년 터키 경제는 시리아 내전 격화 및 테러위험 확대, 러시아 군용기 격추에 따른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등과 같은 정치·외교적 리스크 증대로 전년대비 3.3% 성장에 그친 바 있음.²⁾
- 이에 터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세금인하, 중소기업 재정지원 등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내수활성화에 적극 나섰으며, 2016년 11월(7.5% → 7.6%), 12월(7.6% → 8.0%) 정책금리 인상 이후 2017년에는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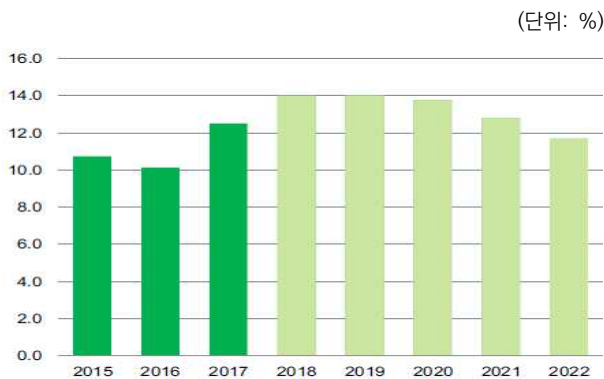
1) Bloomberg(2018. 3. 29), "Turkish Economy Outperformed China, India in 2017."

2) 2017년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이러한 2016년 성장을 둔화의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도 평가가 가능함.

자릿수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정책금리를 동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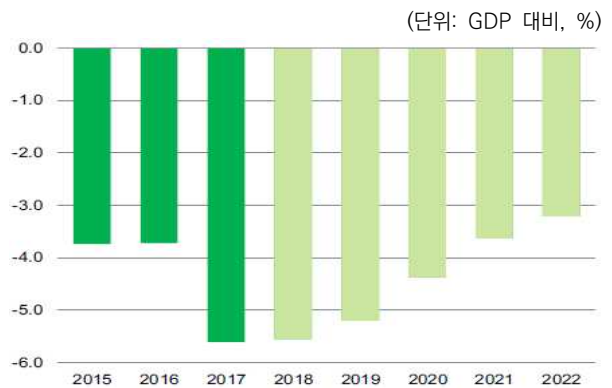
- 터키 정부는 2017년 대규모 신용보증기금을 발족시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금융제약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함.
 - 내수 진작을 위해 터키 정부는 가구 및 부엌 용품에 대한 부가세를 인하하였으며, 이는 비약적인 개인소비의 증가로 이어짐.
- 이와 함께 러시아와의 갈등과 테러위험으로 2015년 이후 침체되었던 터키의 관광산업 부문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과 테러위험 완화 등으로 2017년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

그림 3. 터키의 단기 이자율 추이 및 전망



주: 2017년까지 실적치, 2018년 이후 예측치.
자료: IHS Markit(2018. 4. 18), Turkey Economic Outlook(검색일: 2018. 4. 24).

그림 4. 터키의 경상수지 추이 및 전망



주: 2017년까지 실적치, 2018년 이후 예측치.
자료: IHS Markit(2018. 4. 18), Turkey Economic Outlook(검색일: 2018. 4. 24).

표 1. 터키의 최근 주요경제지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질 GDP 증가율(%)	8.5	11.2	4.9	8.5	5.2	6.0	3.3	7.3	4.6
명목 GDP(십억 달러)	769.6	830.4	872.1	948.6	933.0	857.4	861.7	848.2	849.8
명목1인당 GDP(미달러)	10,640	11,312	11,695	12,517	12,112	10,954	10,838	10,504	10,374
소비자물가상승률(%)	8.6	6.5	8.9	7.5	8.9	7.7	7.8	11.1	10.2
정책금리(%)	6.8	5.8	5.6	4.5	8.3	7.5	8.0	8.0	8.0
재정수지(GDP 대비 %)	-3.2	-0.1	-1.8	-1.3	-0.8	-1.1	-1.7	-2.5	-3.0
인구(백만 명)	72.3	73.4	74.6	75.8	77.0	78.3	79.5	80.7	81.9
실업률(%)	11.1	9.1	8.4	9.0	9.9	10.3	10.9	10.9	9.9
경상수지(GDP 대비 %)	-5.9	-9.0	-5.6	-6.8	-5.0	-3.7	-3.7	-5.6	-5.6
환율(LCU/US\$, 기말기준)	1.5	1.9	1.8	2.1	2.3	2.9	3.5	3.8	4.6

주: 2017년까지 실적치, 2018년은 전망치.
자료: IHS Markit Turkey: Country Reports Country Outlook Economic Monthly Forecast Update Tables.
Last updated: 15 April 2018(검색일: 2018. 4. 24).

- 2017년 터키의 잠재성장률을 초과한 고성장은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단기 이자율 상승, 경상수지 불균형 심화 등의 부정적 요소들도 수반함(그림 2, 3, 4 참고).
 - 전술한 확대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졌으며, 여기에 터키 리라화의 가치하락이 더해져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초과함.
 - 군사 쿠데타 실패 이후 적극적인 확대재정·통화정책의 영향으로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다소 높은 8.1%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 들어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가속화되어 터키 중앙은행 목표치의 두 배를 크게 초과하는 10.8%를 기록하였으나 명목 정책금리는 10%에서 동결됨(표 1 참고).
 - 국내수요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과정에서 수반된 과도한 물가상승과 리라화 가치하락은 수입물가 인상을 통해 중·단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더욱 심화시킴.
 - 터키의 경상수지는 2014년 GDP 대비 5%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15~16년 2년 동안 GDP 대비 -3.7%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2017년에는 다시 GDP 대비 5%를 초과하는 적자를 기록함.

2. 터키 경제의 주요 성장요인과 위험요인

가. 주요 성장요인

- 최근 터키 경제의 고성장은 주로 대내외 정세불안 완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 효과, 국내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 등에 기인함.
 - 시리아 내전 격화, 러시아와의 외교 갈등, 쿠데타 발발, 테러위험 확대 등과 같은 터키 대내외의 정세불안으로 2016년 경제성장은 3.3%에 그쳤음.
 - 2015년 7월 이후 8개월 동안 총 6차례의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210명이 사망하였는데, 특히 지난 2016년 3월에는 이스탄불, 앙카라 등 도심 한가운데에서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희생자 중 상당수가 외국 관광객들이었음.
 - 대내외 정세불안은 터키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³⁾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러시아와의 갈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음.
 - 터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3,922만 명에 달했던 관광객 수는 2016년에 2,200만 명까지 감소하였으며, 대내외 정세불안이 다소 완화된 2017년에는 3,862만 명으로 다시 회복됨.
 - 지난 2015년 11월 24일 터키 영공 침범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 이후 러시아 정부가 터키 방문 제한 조치를 취해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던 러시아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한 바 있으며, 터키의 쿠데타 실패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면서 러시아 관광객 수도 다시 회복됨.⁴⁾

3) 관광산업은 터키 GDP의 약 4%, 전체 취업인구의 7%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관 산업을 포함할 경우 GDP 기여도는 17%에 달하고 임시직 파트타임까지 감안하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높아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MI(2018), *Turkey Tourism Report*, Q1 참고.

4) 2017년 1월부터 10월 통계를 바탕으로 2017년 러시아 관광객 수는 약 4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독일의 420만 명을 초과하는 최대 관광객 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MI(2018), *Turkey Tourism Report*, Q1, p. 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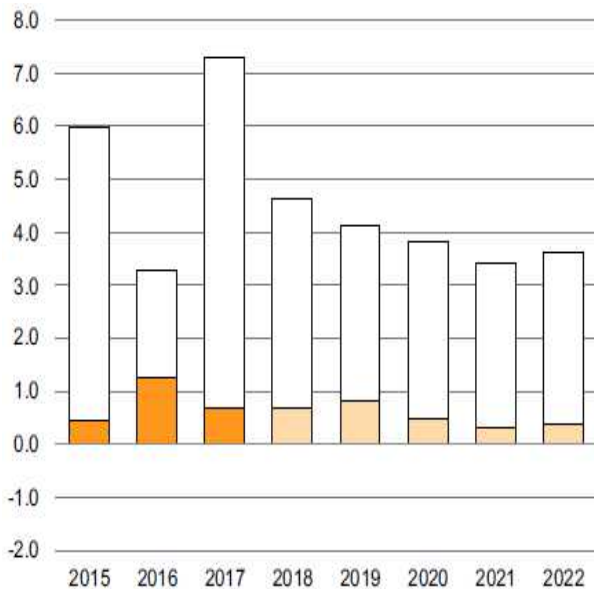
-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은 젊고 소비지향적인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터키의 내수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여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에너지가격 유지와 실질구매력 증대로 국내소비 심리와 함께 기업의 투자 심리도 크게 개선됨.

■ 2017년 터키의 경제성장은 절반 이상이 민간소비 증가에 기인하였고, 그다음으로 고정투자 증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정부지출과 순수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함(그림 5~8 참고).

- 2016년 확대재정정책으로 3.3%의 경제성장률 중 1%p 이상의 성장기여도를 보여주었던 정부지출은 2017년 들어 성장기여도가 1%p 미만에 그침.
- 2017년 7.3%의 경제성장률 가운데 민간소비가 3.7%p 이상의 성장기여도를 보여 전형적인 내수기반 성장세가 지속됨.
- 민간소비는 2015년 6.0%의 경제성장에서 3%p를 초과하는 성장기여도를 나타냈으며, 2016년에는 3.3% 성장에서 2%p 이상의 기여도를 차지하는 등 과거에도 터키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2017년 경제성장에서 고정투자 증가는 2%p 이상의 적지 않은 성장기여도를 보였으며, 순수출 증가는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한 양(+)의 성장기여도를 기록함.

그림 5. 정부지출의 GDP 성장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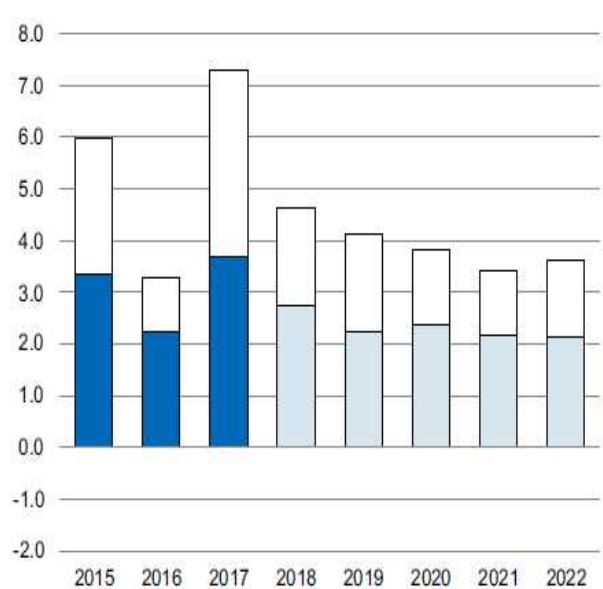
(단위: %p)



주: 2017년까지 실측치, 2018년 이후 예측치.
자료: IHS Markit(2018. 4. 18), Turkey Economic Outlook(검색일: 2018. 4. 24).

그림 6. 민간소비의 GDP 성장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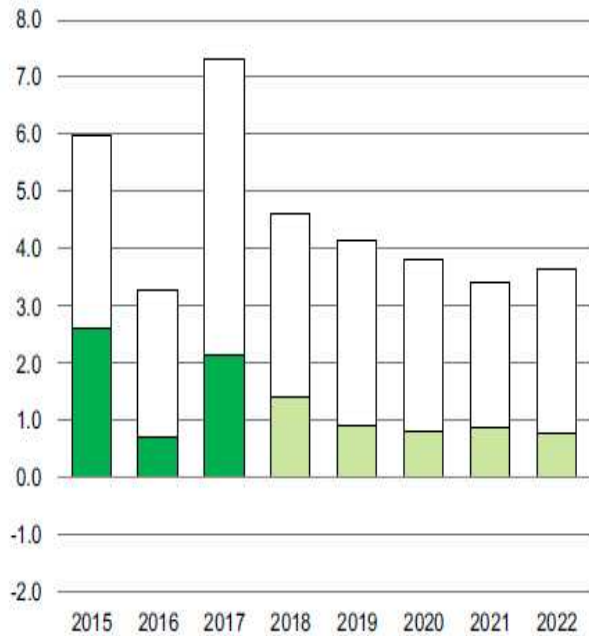
(단위: %p)



주: 2017년까지 실측치, 2018년 이후 예측치.
자료: IHS Markit(2018. 4. 18), Turkey Economic Outlook(검색일: 2018. 4. 24).

그림 7. 고정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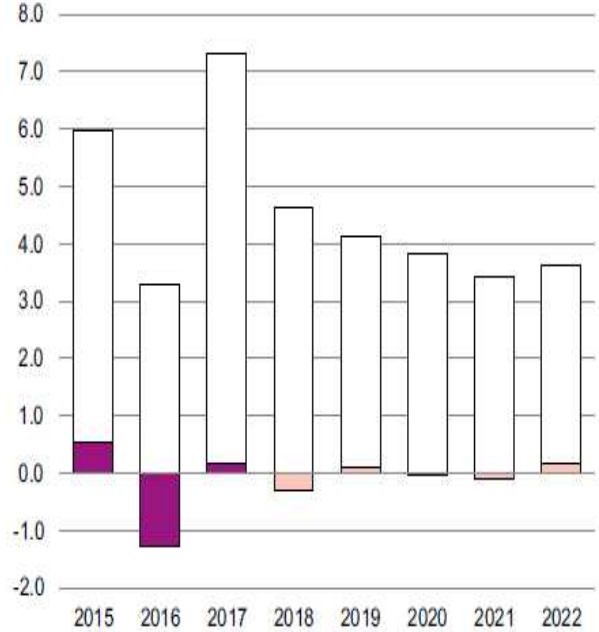


주: 2017년까지 실측치, 2018년 이후 예측치.

자료: IHS Markit(2018. 4. 18), Turkey Economic Outlook(검색일: 2018. 4. 24).

그림 8. 순대외무역의 GDP 성장 기여도

(단위: %p)



주: 2017년까지 실측치, 2018년 이후 예측치.

자료: IHS Markit(2018. 4. 18), Turkey Economic Outlook(검색일: 2018. 4. 24).

나. 위험요인

■ IMF는 터키의 경제성장이 상당 부분 국내수요의 증대에 힘입었다는 점을 들어 국제유가 인상과 리라화 환율변동성 확대 등으로 현재 과열된 터키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국제신용평가 기관들도 터키 경제의 최근 위험요인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IMF는 지나치게 내수의존적인 터키 경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대외불균형 심화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⁵⁾
- IMF는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비롯한 대외불균형 심화가 외국인투자 유입에 민감한 터키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킬 가능성에 주목함.
- 지난 4월 7일 무디스는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비중이 높은 터키 경제가 대외충격 위험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터키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Ba1에서 Ba2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함.
- 또한 지난 5월 2일 S&P도 경상수지 악화 및 재정적자 확대와 높은 인플레이션을 등을 터키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 대외차입에서 단기자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터키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함.

5) Bloomberg(2018. 3. 29), "Turkish Economy Outperformed China, India in 2017."

그림 9. 터키 리라화의 최근 환율 추이

(단위: 리라/달러, 리라/유로)



자료: Central Bank of Turkey.

그림 10. 주요 신흥국 최근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이러한 터키 경제의 위험요인과 함께 서방과 대립각을 보여주고 있는 현 에르도안 정부의 정치적 리스크도 해외투자자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지난 2017년 4월 16일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의 변경을 골자로 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된 결과, 개헌이 가결되어 삼권분립의 균형 붕괴, 장기집권에 의한 권력의 부패 가능성과 함께 EU와의 대립 등으로 경제 부문에서의 어려움이 우려됨.⁶⁾
- 개헌 찬성 집회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EU 가입협상의 전제조건으로 폐지된 사형제도 부활을 계속 언급했으며, EU 가입절차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EU와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 터키는 대외무역의 60% 정도가 EU와의 교역이며,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80% 정도가 유럽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EU는 터키 영토에 있는 약 3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 관리 조건으로 30억 유로 지원과 터키 시민의 유럽 무비자 입국을 약속한 바 있음.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터키 경제는 중·단기적으로 내수 중심의 2017년 4/4분기 고성장세가 2018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나, 2018년 3/4분기 이후에는 과열된 민간소비 부문이 다소 진정되면서 성장세가 상당 부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7.3%의 성장을 기록했던 터키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2018년 1/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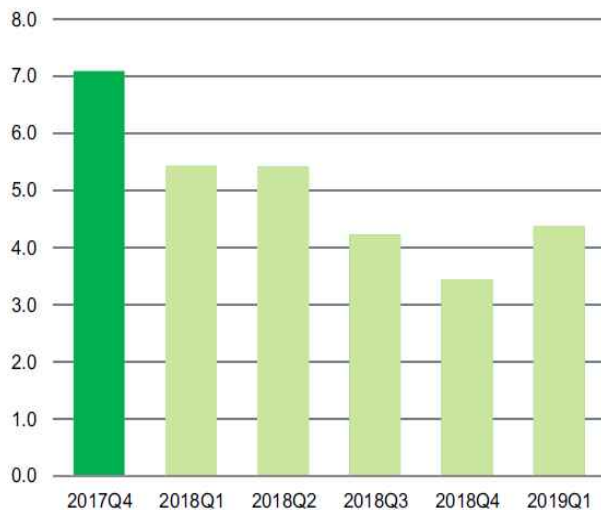
⁶⁾ Oxford Analytica(2018. 4. 28), "Turkey-EU relations stall even on transactional basis."

와 2/4분기까지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나 3/4분기에는 4% 초반, 4/4분기에는 3%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⁷⁾

- 두 자릿수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율과 리라화의 거듭되는 가치하락은 실질임금과 수입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구매력 측면에서 민간소비 부문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2018년 3/4분기 이후에는 경제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민간소비, 투자, 수입 등 전적으로 국내수요 증가에 기인한 성장세가 점차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리라화와 평가절하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꾸준할 것으로 분석됨(그림 12 참고).
- 2018년 상반기까지 국내수요의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세계경제 활성화 전망에 따른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터키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2018년에도 GDP 대비 5%를 초과하여 대외불균형 심화가 계속될 전망이다.
- 자동차 부문을 비롯한 제조업 수출과 관광산업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의 개선이 경상수지 적자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으나, 강력한 수입수요 증가세에 따른 대외수지 불균형을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임.

그림 11. 중·단기 터키 경제의 분기별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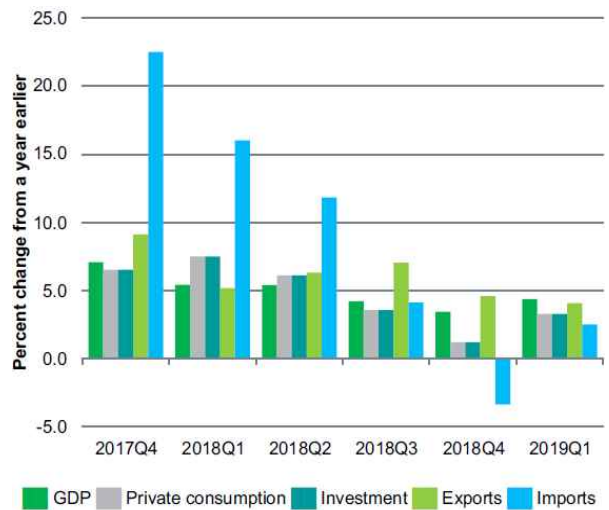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실질 GDP 증가율, %)



주: 2017년까지 실적치, 2018년 이후 예측치.
자료: IHS Markit(2018. 4. 18), Turkey Economic Outlook(검색일: 2018. 4. 24).

그림 12. 주요 부문별 GDP 성장기여도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주: 2017년까지 실적치, 2018년 이후 예측치.
자료: IHS Markit(2018. 4. 18), Turkey Economic Outlook(검색일: 2018. 4. 24).

■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 지속으로 터키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4% 전후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나, 효과적인 물가상승 압력 차단과 환율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구조적인 경쟁력 향상을 통한 대외불균형 개선 성공여부가 건실한 경제성장의 관건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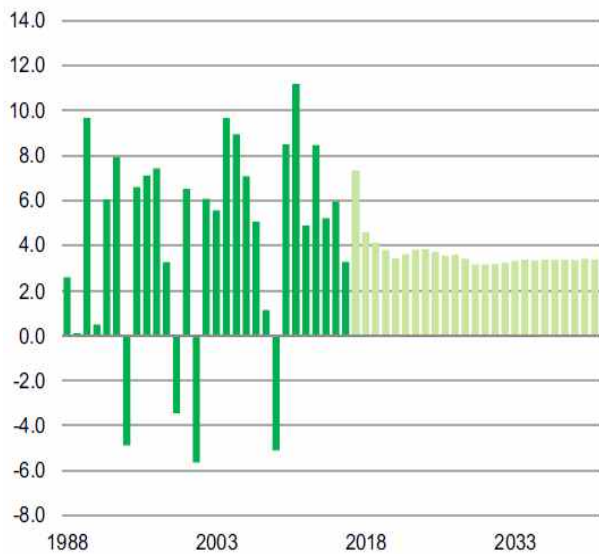
- 터키 정부의 '비전 2023' 목표 달성과 2018년 조기 대선 및 총선 일정 등으로 정부 주도의 내수확대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7) IHS Markit(2018. 4. 18), Turkey Economic Outlook.

- 터키 정부는 터키 공화국 선포 10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명목 GDP 2조 달러, 대외무역 1조 달러(수출 5천억 달러, 수입 5천억 달러), 1인당 GDP 25,000 달러, 실업률 5% 미만 등의 달성을 통해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전 2023’을 추진 중임.
- 터키는 대선과 총선을 오는 6월 24일로 앞당겨 실시할 예정인바, 정부의 확대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완화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⁸⁾ 터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이러한 전망에 무게를 더함.⁹⁾

그림 13. 중·장기 실질 GDP 성장 전망

(단위: 전년대비, %)



주: 2017년까지 실측치, 2018년 이후 예측치.
자료: IHS Markit(2018. 4. 18), Turkey Economic Outlook(검색일: 2018. 4. 24).

그림 14. 1인당 명목 GDP 성장 전망

(단위: 명목 달러)



주: 2017년까지 실측치, 2018년 이후 예측치.
자료: IHS Markit(2018. 4. 18), Turkey Economic Outlook(검색일: 2018. 4. 24).

■ 터키 경제의 구조적 특성 측면에서도 향후 터키 정부의 내수확대 중심 성장정책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터키 경제의 대외불균형 심화, 거시경제 불안정성 확대, 대외위험요인 증가 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터키 경제는 전형적으로 높은 인구증가율과 실업률, 소비지향적 젊은 층의 상대적으로 큰 인구비중, 국내 자본 및 기술 부족 등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건설, 관광 서비스 등 국내수요 증진을 통해 고성장과 고용증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님.
- 거시경제 안정화와 대내외 균형 및 구조적인 경쟁력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러한 내수확대 일변도의 경제성장 모델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힘들 것으로 전망됨.
- 과거 미국의 테이퍼링 선언과 금리인상 단행 시 터키의 리라화 환율과 주식시장 불안정성이 가장 심각했던바,

8)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8), *Country Report: Turkey*(Generated on April 24th 2018).

9) Oxford Analytica(2018. 5. 4), "Erdogan may put Central Bank under yet more pressure."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국제상품가격 상승세 등은 특히 대외요인에 취약한 터키 경제의 안정성에 치명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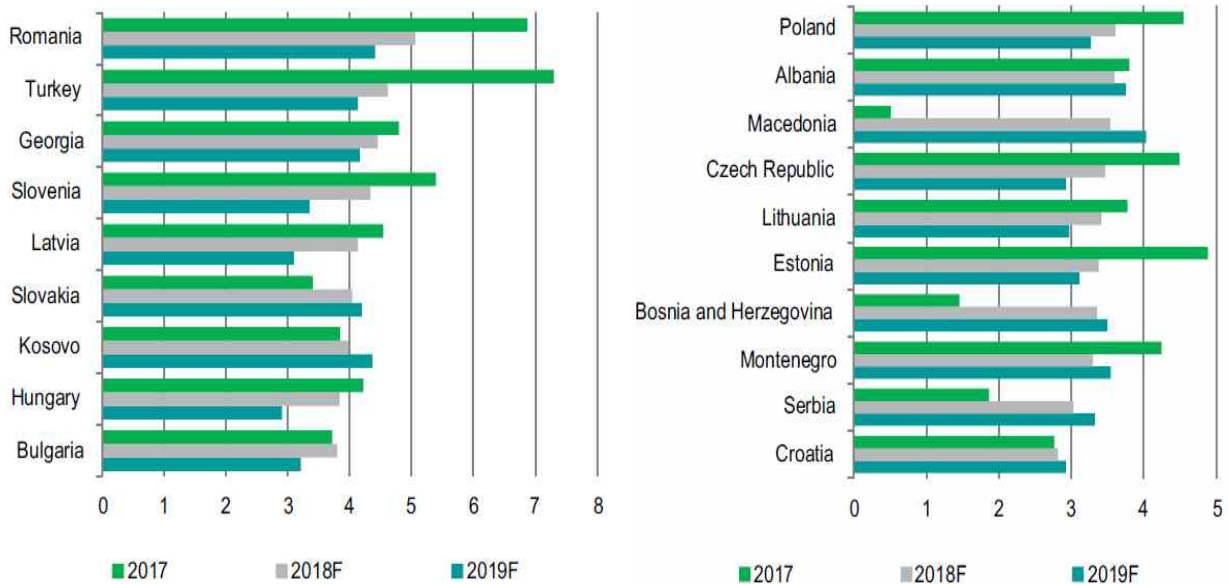
-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며,¹⁰⁾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는 ECB의 단계적 양적완화 축소 계획이 오는 7~8월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음.¹¹⁾

■ 2013년 5월 이후 한·터키 FTA 발효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중장기적 대외위험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터키 경제의 고성장세와 막대한 성장잠재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보유한 유럽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고 중동·북아프리카는 물론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CIS 진출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갖추었으며 이미 경쟁이 치열해진 브릭스(BRICS) 이후 가장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흥시장 터키의 성장세를 주시해야 함.
-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터키 경제는 최근 유럽에서 서유럽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동부 유럽 및 발칸 국가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15. 터키와 중동부유럽 국가의 실질GDP 성장 전망 비교

(단위: %)



주: 2017년까지 실적치, 2018년 이후 예측치.

자료: IHS Markit(2018. 4. 18), Turkey Economic Outlook(검색일: 2018. 4. 24).

주: 2017년까지 실적치, 2018년 이후 예측치.

자료: IHS Markit(2018. 4. 18), Turkey Economic Outlook(검색일: 2018. 4. 24).

- 한·터키 FTA 상품 부문 발효 이전인 2012년에 비해, 2017년 우리의 수출이 26%, 수입이 14.1% 증가하는 등 최근 양국간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2017년 대터키 수출은 약 61억 5천만 달러에 달해 터키는 우리에게 19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 성장함.
-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의 터키 진출 및 생산설비 확충을 비롯하여 제조업, 방송·ICT,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10) Bloomberg(2018. 5. 10), "Pause in Inflation Pickup Eases Pressure on Fed for Faster Hikes."

11) Reuters(2018. 5. 8), "ECB can end bond buys this year despite slowdown."

한국기업의 대터키 투자도 FTA 발효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밖에도 한화큐셀의 태양광발전소 수주, 삼성물산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완공 등 에너지 부문과, 보스포러스 해협을 연결하는 대교 및 해저터널 건설 완공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 우리 기업의 터키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대규모 내수시장과 최근 고성장세를 감안하면, 향후 터키와의 경제협력 강화에서 전술한 내수확대 중심의 터키 경제성장 모델을 주목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터키의 거시경제 불안요인 및 정치적 리스크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미국의 금리인상 결정에 가장 취약한 신흥국 통화가 터키의 리라인바, 우리 기업들의 대터키 교역 및 투자를 포함한 각종 비즈니스에서 리라화 환율의 불안정성은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헤지(foreign exchange hedge) 등과 같은 대응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 o 미국의 금리인상과 ECB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최근 다시 신흥국의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과거와는 달리 최근 신흥국은 고성장, 변동환율제 채택, 상대적으로 많은 외환보유고, 재정건전성 등으로 전면적인 위기 확산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¹²⁾

표 2. 터키의 외채관련 주요 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 순유입(십억 달러)	24.0	20.1	-15.7	6.3	21.3	14.5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 순유입(GDP 대비 %)	2.5	2.2	-1.8	0.7	2.5	1.7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십억 달러)	8.8	5.7	12.5	9.6	7.4	6.7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GDP 대비 %)	0.9	0.6	1.5	1.1	0.9	0.8
외환보유고, 금 제외(십억 달러)	110.9	106.9	92.9	92.2	84.4	69.3
총외채(십억 달러)	389.9	401.9	396.4	405.1	442.4	463.5
총외채(GDP 대비 %)	41.1	43.1	46.2	47.0	52.5	55.0
단기외채(십억 달러)	130.3	131.6	102.4	98.0	112.4	116.2
단기외채(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	33.4	32.7	25.8	24.2	25.4	25.1
단기외채(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	117.5	123.1	110.2	106.3	133.2	167.7

주: 2017년까지 실적치, 2018년은 전망치.

자료: IHS Markit(2018. 3. 13), Country Reports: Sovereign risk - Turkey(검색일: 2018. 5. 4).

- 전면적인 신흥시장 위기 확산 가능성이 크지는 않으나 최근 물가상승, 환율절하 등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되고,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상당한 터키,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등의 신흥

12) Financial Times(2018. 5. 6), "Emerging economies tipped to weather market turmoil."

국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경고함.¹³⁾

-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지난 5월 8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으며, 터키 리라화 가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으로 지난 5월 15일 사상 최저치인 달러당 4.45리라를 기록하는 등 최근 3개월간 15% 폭락함.
- 터키는 최근 EU와의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기수입으로 인한 러시아와의 급격한 관계 개선의 반대급부로 미국과의 갈등도 점점 깊어지고 있음.
- 중동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하게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최근 무기체계가 상충된다는 서방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첨단 방공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 하원은 터키에 대한 F-35 공급 계획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논의함.¹⁴⁾
- 따라서 향후 터키와의 경제협력 강화에서 터키의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전술한 거시경제 불안요인과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하여 가능한 시나리오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을 병행하여야 할 것임. **KIEP**

13) *Ibid.*

14) Reuters(2018. 5. 7), "Turkey warns U.S. of retaliation."